

## 사노피, 2023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6 가 DTaP 혼합백신 심포지엄 개최

- \*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대상, '왜 6 가 DTaP 혼합백신인가' 주제로 런칭 심포지엄 진행
- \* DTaP 혼합백신의 글로벌 트렌드 및 6 가 혼합백신의 접종자, 피접종자 대상 이점 소개
- \* 국내 유일 6 가 DTaP 혼합백신 핵사심, B 형간염 항원에 대한 장기 면역 효과 데이터 확인

대한민국 서울, 2023 년 10 월 23 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(이하 사노피) 은 지난 19 일,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6 가 DTaP 혼합백신의 국내 임상 데이터와 이점 등을 공유하는 런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
'왜 6 가 DTaP 혼합백신인가(Why hexavalent vaccine?)'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장 조대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,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혜경 교수가 6 가 DTaP 혼합백신의 이점 및 임상 데이터, 6 가 DTaP 혼합백신 도입 후 예방접종률이 향상된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.

조혜경 교수는 6 가 DTaP 혼합백신 사용 시, 접종 횟수 감소로 인한 ▲영아의 접종 순응도 향상 ▲적기 및 완전 접종률 향상 ▲부모의 병원 방문 비용 및 경제적 손실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. 발표에 따르면, 혼합백신은 여러 감염질환을 하나의 주사로 예방할 수 있어, 접종 및 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 적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, DTaP 혼합백신 중 6 가 DTaP 혼합백신이 적기 및 완전 접종률이 가장 높다. 또한 소개된 사회경제적 절감 효과 연구 결과에서는 6 가 DTaP 혼합백신을 국내 필수예방접종에 도입할 경우, 유아당 47,155 원(36.22 달러) 또는 출생 코호트당 약 120 억원(약 923 만 달러)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, 주로 부모의 병원 방문 등 시간 비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의료진 대상 6 가 DTaP 혼합백신의 이점에 대해서도 발표가 진행됐다. 조혜경 교수는 즉시 사용 가능한 RTU(Ready-To-Use) 제형을 대표적 이점으로 꼽으며,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6 가 DTaP 혼합백신은 완전 액상 형태로 재구성 과정이 필요 없어 의료진의 백신 준비 시간과 관리 및 접종 오류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. 또한 6 가 DTaP 혼합백신이 불완전액상(Non-Fully Liquid) 제형의 백신 대비, 접종 오류 위험을 약 5 배 감소시키는 확인되었으며, 영국에서는 6 가 DTaP 혼합백신이 주사액 혼합이 필요한 다른 백신 대비 연간 약 90 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.

이어진 6 가 DTaP 혼합백신 '핵사심(핵사심프리필드시린즈주, 이하 핵사심)'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, B 형간염 항원에 대한 장기 면역 효과 관련 발표에서는 면역원성 및 안전성의 확인과 함께, 장기적으로 면역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했다. '핵사심'으로 기초 접종을 시행할 경우 B 형간염 접종 횟수가 기존보다 1 회 증가하지만, WHO 에서는 3~4 회의 B 형간염 접종은 모두 가능한 방법이며, 추가 접종은 별다른 해가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었다.

마지막으로 조혜경 교수는 6 가 DTaP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해외 사례 발표를 통해 해당 연령에서 적기 및 완전 접종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. 6 가 DTaP 혼합백신을 도입한 호주의 생후 12 개월 어린이 접종률을 비교한 결과,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한 직후인 2009 년 84.9%였던 것 대비 2018 년에는 약 92.6%까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. 또한 조 교수는 6 가 DTaP 혼합백신 예방접종 권고사항에 대해 6 가 DTaP 혼합백신은 해당 연령대에 권장되는 폐렴구균,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, 동일 제조사의 4 가, 5 가 DTaP 혼합백신과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.

### 조혜경 교수

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

"혼합백신 사용에 따른 접종 횟수 감소는 새로운 백신 도입을 보다 쉽게 한다는 이점이 있고, 무엇보다 적기 및 완전 접종률 증가는 영아의 감염질환 예방을 강화해 사회 공공보건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을 지닌다"고 설명했다.

### 파스칼 로빈(Pascal Robin)대표

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

"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영유아 감염질환 예방을 책임지는 소아 전문의료진들과 직접 만나 혼합백신의 장점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, 핵사심의 장점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 이어 "6 가 DTaP 혼합백신은 영아 및 보호자, 의료진의 접종 환경을 개선시키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여러 이점이 기대되는 백신이다. 한국은 영아 10 명 중 9 명이 5 가 DTaP 혼합백신을 사용하는 만큼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혼합백신 사용률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6 가 DTaP 혼합백신 역시 그 가치를 잘 살려 영유아 및 의료진, 사회 전체를 위해 활발히 사용될 것이라 생각한다"며, "사노피는 한국에 4 가, 5 가, 6 가 DTaP 혼합백신을 차례로 소개해 온 공공보건 파트너로서, 혁신적인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"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사노피는 100 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진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으로서 매일 250 만 도즈 이상, 매년 5 억 명에 달하는 인구에게 예방접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, 17 여 가지의 감염성 질환(콜레라, 디프테리아, 소아마비, 백일해, 파상풍, A 형간염, B 형간염, 수막구균, 인플루엔자 등)을 예방하는 폭넓은 백신을 생산·공급하고 있다. 또한 60 년 이상 소아용 혼합백신 개발 역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혼합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키며, 영아의 기초 면역 형성 및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. 사노피는 지난 40 여 년 간 국내 제약사 및 주요단체, 보건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며, 국내 주요 백신 공급원으로 한국의 공공보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.

### 핵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(Hexaxim)에 대하여

핵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는 생후 2 개월 이상의 영아에서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해, B 형간염, 폴리오(소아마비) 및 b 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(Hib)에 의해 발생하는 침습성 질환을 예방한다.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 연구를 통해 면역원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. 2013 년 유럽연합에서 첫 판매 허가를 취득한 핵사심은 세계 125 개국에 도입되어 약 1 억 5 천 5 백만 도즈 이상이 접종되었다(2022 년 3 월 기준). 6 가 DTaP 혼합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권고되는 추세로, 유럽, 캐나다, 호주 등 40 개국 이상에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권고되고 있다.